

이슈 모니터링: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¹⁾

- ✓ 전국 451개 업체(제조업 263개, 서비스업 158개, 건설업 30개)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업황, 고용·투자·자금상황, 조달리스크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, 조사업체의 76.4%는 금년 2~4월 중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고 응답
 - 생산 감소폭은 절반 가까운 업체가 -20%~0% 구간에 집중되었으며, -20%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약 30% 수준
 - 규모별로는 소규모 기업,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부진이 심각
- ✓ 응답업체의 13%가 경영 악화로 이미 인력을 축소한 가운데,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27%의 기업이 고용 축소 계획이 있다고 답변
 - 현재까지 인력을 축소한 업종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나, 향후 축소 계획이 있는 기업 기준으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비슷한 수준
- ✓ 5월 현재, 업체들의 설비투자 진행 상황은 다소 차질(29.0%), 보류(22.1%) 등이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비중은 38.0%에 그침
- ✓ 국내외 관계사들의 생산 및 물류 차질 등으로 영업에 필수적인 원자재, 부품 등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약 30% 수준
- ✓ 자금사정은 과반수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(다소 어려움 29.4%, 어려움 16.2%, 심각히 어려움 7.2%)

1)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(강남본부 제외)가 5월 13일~6월 5일 중 전국 4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. 조사대상 570개 업체 중 451개 업체가 응답(부분 응답 포함, 응답률 79.1%)하였으며, 응답업체는 대기업 171개(37.9%), 중견기업 174개(38.6%), 중소기업 104개(23.1%) 및 공공기관 2개(0.4%), 업종별로는 제조업 263개(58.3%), 서비스업 158개(35.0%), 건설업 30개(6.7%) 등으로 구성되었다.

(업황)

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된 2~4월 중 조사 업체의 76.4%가 자사의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. 생산 감소폭은 절반 가까운 업체가 -20%~0% 구간에 집중되었다. 생산이 20%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수 비중은 대기업 18.9%, 중견기업 26.7%, 중소기업 52.4%로 규모가 영세할수록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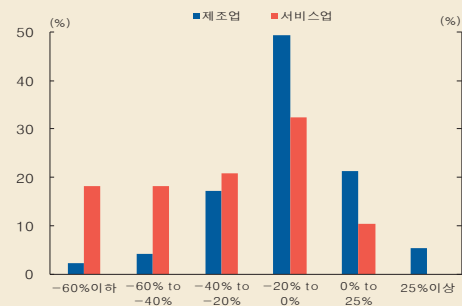
2020.2월~4월 중 생산 실적¹⁾

	전체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■ -60% 이하	6.2	2.5	4.0	14.6
■ -60% ~ -40%	7.3	8.2	4.0	12.2
■ -40% ~ -20%	16.9	8.2	18.7	25.6
■ -20% ~ 0%	46.1	54.1	51.3	25.6
■ 0% ~ 25%	19.7	23.0	16.7	20.7
■ 25% 이상	3.9	4.1	5.3	1.2

주: 1)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에 응답한 업체수 비중

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부진이 심각하였다. 제조업은 약 절반 가까운 업체가 생산 감소폭이 -20%~0%라고 응답하고 그 이상 감소했다고 답변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, 서비스업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.

2020.2~4월 중 제조업·서비스업 생산 실적¹⁾



주: 1)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에 응답한 업체수 비중

세부 업종별로 보면, 제조업은 자동차(36.4%), 전자·통신장비(25.0%) 등에서 생산이 20%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높았다. 서비스업은 대부분 업종에서 생산 감소폭이 큰 가운데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82.8%에 달하는 업체가 생산이 20% 이상 감소했다고 답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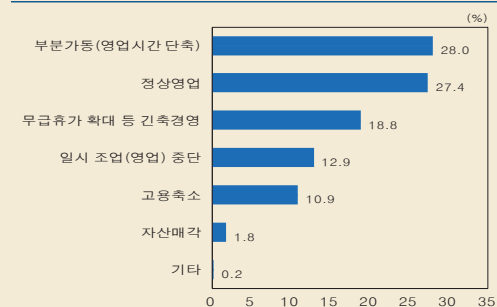
2월~4월 중 생산이 20% 이상 감소한 업체 비중¹⁾

	비중 (%)	
제조업	자동차	36.4
	전자·통신	25.0
	철강	19.0
	기계장비	12.5
	석유화학	8.7
서비스업	숙박음식점	82.8
	운수·창고	45.5
	도소매	34.8

주: 1) 표본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종(제조업은 20개 이상, 서비스업은 10개 이상 기준)에서 2월~4월 중 전년동기대비 생산 증가율 -20% 이하 구간에 응답한 업체수 비중

코로나 사태로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업체들은 부분 가동(28.0%)을 비롯하여 유·무급 휴가 확대, 순환휴직, 투자 축소·보류 등 긴축 경영(18.8%), 일시 조업 중단²⁾(12.9%) 및 고용 축소(10.9%) 등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정상영업(재택근무 포함)을 한 기업 비율은 27.4%에 불과하였다.

업황 악화에 대한 대응 방안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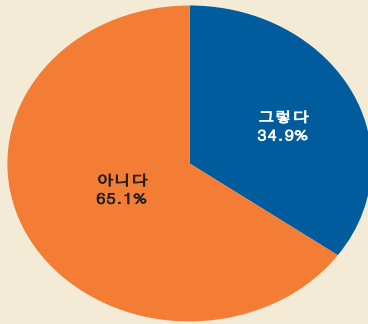


주: 1) 복수 응답 허용. '기타'로 응답한 일부 주관식 답변들은 재검토를 통해 설문으로 제시한 항목으로 재분류

2) '일시 조업 중단'을 응답한 업체들의 평균 조업중단 일수는 15.2일로 집계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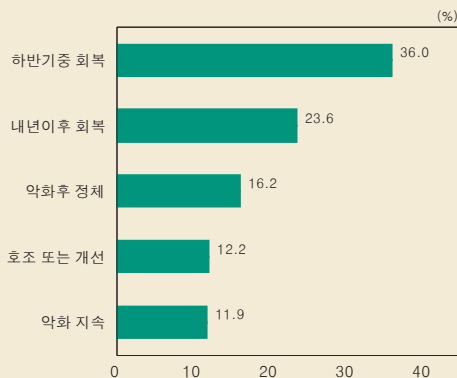
지난 2-3월과 비교한 4-5월 중 생산 및 매출 상황에 대해서는,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업체가 34.9%,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가 65.1%로 파악되었다.³⁾

4-5월 중 업황 개선 여부(2-3월 대비)



향후 자사의 업황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36%⁴⁾가 하반기 중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가운데 내년 이후 회복(23.6%), 악화 후 정체(16.2%), 악화 지속(11.9%) 등 부정적 예상도 과반을 차지하였다.

자사의 향후 업황에 대한 인식



(고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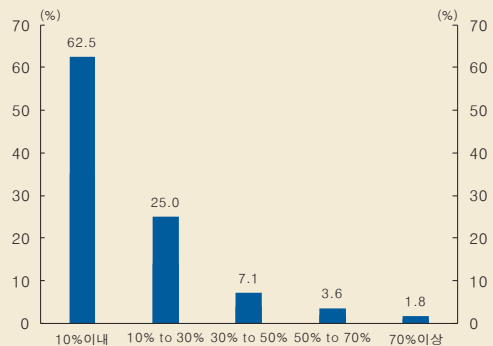
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력을 축소한 경우는 전체 응답기업의 13.0% 수준(57개)으로 조사되었다. 서비스업체의 19.3%, 제조업체의 9.7%가 이에 해당한다.

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한 인력 축소 여부

	전체	제조업	서비스업
'그렇다'	13.0	9.7	19.3
'아니다'	87.0	90.3	80.7

고용을 축소한 경우 그 규모(코로나 사태 이전 고용수준 대비)는 10% 이내라는 응답이 62.5%로 가장 많았고 10%~20% 줄였다는 업체도 25.0%의 비중을 나타냈다. 30% 이상 인력을 줄였다고 응답한 업체는 모두 서비스업체였다.

코로나 사태 이전 고용수준 대비 인력 축소 규모



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, 인력을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(428개)의 27.1%가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.

3) 업종별 평가('개선' / '그렇지 않다')를 보면 서비스업 47.4% / 52.6%, 제조업 25% / 75%로 나타났다.

4)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체 업종과 비슷한 응답 분포를 보인 가운데 하반기 중 회복을 예상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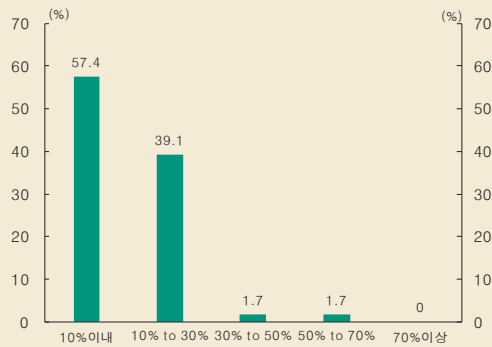
향후 인력 축소 계획

(%)

	전체	제조업	서비스업
‘있음’	27.1	27.5	28.5
‘없음’	72.9	72.5	71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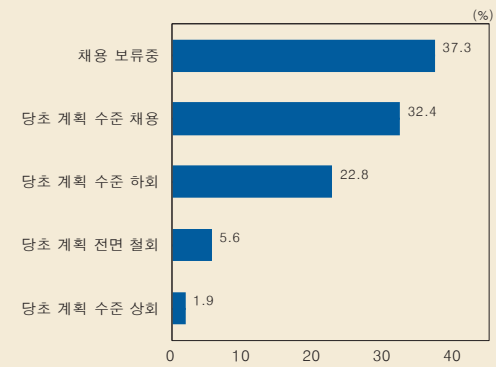
고용 축소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28% 내외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, 예상 축소 규모(현원 대비)는 10% 이내(57.4%), 10%~30%(39.1%) 등의 순이었다.⁵⁾

향후 고용 축소시 예상 규모



올해 신규 채용규모에 대한 전망을 묻는 설문에서는, 당초 계획 수준 채용 또는 계획 수준 상회 응답률이 34.3%에 그친 반면, 채용 보류(37.3%)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당초 계획 수준 하회 또는 전면 철회가 28.4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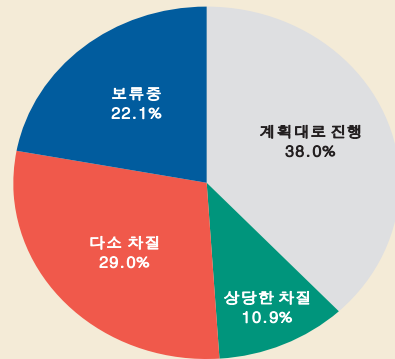
금년 신규 채용 전망



(설비투자)

5월 현재, 업체들의 설비투자 진행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응답 비중이 38.0%에 그친 반면, 다소 차질, 상당한 차질 또는 보류 중이라는 응답이 62%에 달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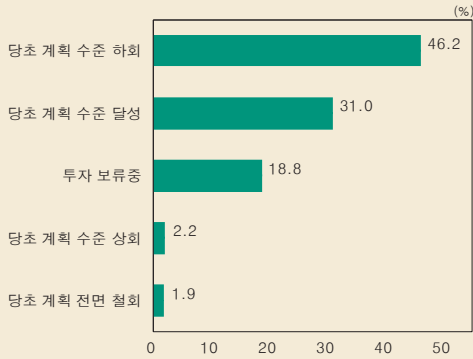
설비투자 진행 상황(5월 기준)



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설비투자 실적은 당초 계획 수준 하회(46.2%)가 절반 수준의 응답을 보인 가운데 계획했던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 비율은 31%에 그쳤다.

5) 향후 예상되는 인력축소 규모가 10%~30%라고 응답한 비율은 제조업(44.9%)과 서비스업(31.7%)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.

금년 설비투자 전망



(원자재, 부품 등 조달 리스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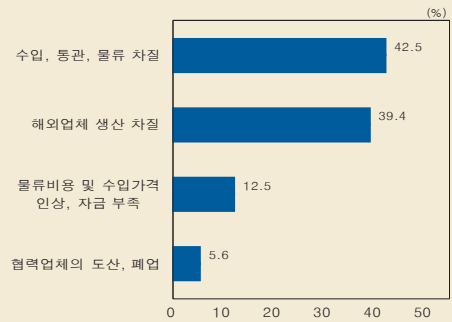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관계사들의 생산 및 물류 차질 등으로 영업에 필수적인 원자재, 부품 등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약 30%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. 특히 향후 조달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원자재, 부품 등 조달 애로 및 향후 리스크 전망

	별 영향 없음	우려	매우 우려
현재 상황	67.8	29.3	2.9
향후 전망	46.2	48.2	5.6

조달 리스크의 대부분은 수입·통관·물류 차질(42.5%)과 해외업체 생산 차질(39.4%)에 연유하였다. 이 밖에 물류비용·수입가격 인상 및 자금부족(12.5%), 협력업체의 도산·폐업(5.6%) 등도 적지 않은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었다.

조달 리스크 응답 비율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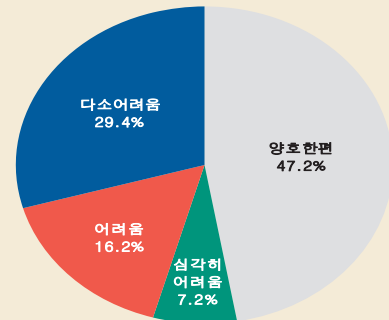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업체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을 상기 항목으로 분류

(자금사정 및 금융 애로사항)

5월 현재, 업체들의 자금사정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중이 52.8%에 달하였다. 구체적으로는 다소 어려움(29.4%), 어려움(16.2%), 심각히 어려움(7.2%) 순으로 조사되었다. 한편 양호하다는 응답은 제조업(50.6%)이 서비스업(36.8%)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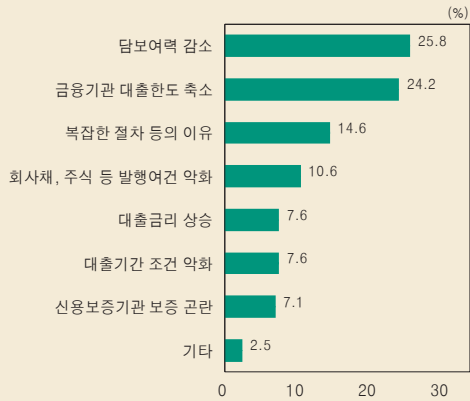
자금사정



기업들은 외부자금 조달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담보여력 감소(25.8%)를 들었다.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 축소⁶⁾(24.2%),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자금 지원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평가(14.6%)도 다수 응답을 차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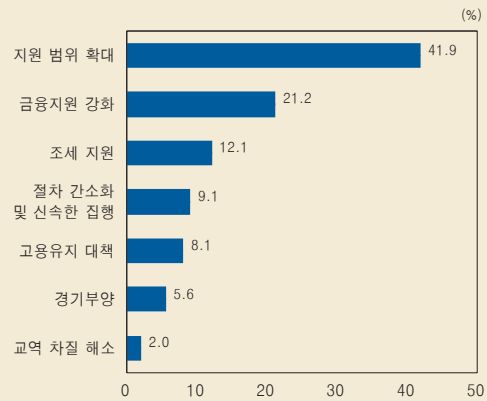
6) 본 설문에서 '기타로 응답한 상당수의 주관식 답변들이 '매출 감소', '유동성 악화' 등을 언급하였다. 이는 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 대출 한도 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이므로 해당 답변은 '금융기관 대출한도 축소' 항목으로 재분류하였다.

금융 애로사항¹⁾



주: 1) 복수 응답. '기타' 로 응답한 일부 주관식 답변들은 재검토하여 설문으로 제시한 항목으로 재분류

대정부 건의사항¹⁾



주: 1) 복수 응답. 업체들이 주관식으로 답변한 내용을 상기 7개 항목으로 분류

(건의사항)

업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편중되어 있는데, 이를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하자는 의견(41.9%)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. 다음으로 기업금융의 신용 또는 담보 여력 평가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(21.2%)가 있었다. 이 밖에도 조세 지원(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포함) 및 절차 간소화, 고용유지, 대규모 경기부양, 국가간 인적·물적 이동 제약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.